

영암군의회 '면의회 변천사' 연구 속도

1950년대 사료집 발간 용역 최종보고회 개원 30주년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영암군의회가 '면의회 변천사'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19일 "1950년대 면의회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해 사료집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 면의회 변천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의회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되돌아 보는 사료집 제작 필요성에 공감, 영암군 면의회 뿌리 찾기에 나섰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1952년부터 1961년까지 면의회 구성 현황, 면의원 임기, 선거 관련 자료, 소속 정당, 연령 등 자료 수집과 면의회 구성 당시 지방선거 관련 사회적 분위기를 등을 수집했다.

법령 및 보존자료 수집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국회 도서관·지방의회 관련 책자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50년부터 의회와 관련된 시대적인 자료를 수집하

는 등 면의회 자료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면의회 변천사는 총 3장으로 구분해 제1장에는 영암군의 역사를 근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위치·지리적 특성, 읍·면 행정구역 변천 과정 등 지역의 주요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제2장은 한국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 분야로 근대 이전 지방자치·지방행정과 근대의 지방자치·지방의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기록했다.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지방의회 주요 내용을 수록했다.

제3장은 영암군 면의회 출범·발전 분야로 ▲제1대부터 제3대까지 면의회 시대적 배경과 의미 ▲전국과 전남의 시·

읍·면의회 의원 선거 투표 현황 ▲11개 면의회 구성 현황 (성명·연령·정당·직업) ▲지방의회 운영 개회 횟수와 회의 일수 ▲제3대 의회 해산까지 다양한 자료가 수록돼 있다.

군의회는 면의회 변천사 2차 연구용역을 추진해 국가·지방기관·도의회에 보존된 면의회 자료와 1950년대 전남·광주 주요 언론보도 내용 검색, 기관·읍면·주민이 보유 중인 면의회 관련 자료 등을 추가 수집할 계획이다.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방자치 역사로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린 뒤편 내용을 찾아 기록 정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1952년에 시작된 최초의 지



영암군의회가 올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영암군 면의회 변천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암군의회는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등 1950년대 면의회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해 사료집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의회 제공)

방의회와 1991년부터 실시한 현 기초의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영암군 면의회는 제1대(선거일 1952년 4월 25일, 임기 1952-1956년), 제2대(선거일 1956년 8월 8일, 임기 1956-1960년), 제3대(선거일 1960년 12월 19일, 임기 1960-1961년)까지 운영됐다. 11개 면의회는 140명 의원 정수로 영암(14), 덕진(12), 금정(14), 신북(13), 시종(13), 도포(12), 군서(13), 서호(12), 학산(12), 미암(12), 삼호(13)로 구성돼 의정 활동을 펼쳤다. /영암=이병영기자

서남해안 섬벨트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총력

유치추진위원회 추진 계획 공유 내달 17일 '세계 섬포럼' 개최

목포, 완도, 신안, 진도 등 서남해안 섬벨트 지역민이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목포상공회의소(이하 목포상회)는 지난 18일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한철 목포상회의 회장은 주재한 회의는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섬 엑스포 유치의 불씨를 지속 확산시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16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섬 엑스포 유치 공감대 형성에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목포상공회의소 제공)

이와 함께 오는 11월 17일 개최 예정인 '2021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포럼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청해 섬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섬의 수도' 선포식을 통해 서남해안 섬벨트가 섬 관련 정책의 중심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섬 벨트 권역별 투어, 섬 음악회 등을 비롯해 섬·바다를 주제로 한 UCC 공모전을 개최해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공감대를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국제 섬 학술대회를 정례화하고 유치추진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철 목포상회의 회장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유치위원회가 전문적인 식견과 논리로 세계 섬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혜선기자

'함평 샤인머스켓' 홍콩 첫 수출길

함평군의 지역 특화작목인 '함평 샤인머스켓'이 홍콩에 첫 수출됐다.

함평군은 19일 "함평 샤인머스켓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이 최근 이상의 군수와 김용오 함평꽃무릇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

보 나비골농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첫 수출 길에 오르기 위해 선적된 샤인머스켓 물량은 500상자(1t)다.

그동안 군은 국내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에 대비, 샤인

머스켓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지난 5월에는 '함평꽃무릇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 수출 창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법인은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기준에 맞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농

약 안전사용법, 알슈기 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상의 군수는 "홍콩 수출을 발판으로 삼아 샤인머스켓 수출 확대 등 유통망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강진군, 내년 지적재조사 추진

총 9개 지구...경계 분쟁 해소 기대

강진군은 19일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4억5천200만원을 확보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 지구는 강진읍(장전, 송현지구), 군동면(시목, 내동안동지구), 칠랑면(현천, 사부지구), 병영면(낙산, 상고, 중고지구) 등 9개 지구(10개 마을) 2천388필지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1910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

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현재 5개 지구(115만9천000㎡)를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162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 소유권 이전 비용, 양도세 등은 전액 무료다. 다만,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 또는 보상받게 된다.

조사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맹지 해소·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토지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정영록기자

나주시, 노인건강 진단사업 우수지자체

저소득층 건강진단 기회 제공...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나주시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노인건강진단사업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건강진단을 실시, 만성질환 및 노인성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 등을 통해 노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킨 공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5천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 건강면접조사·건강기초검사(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에 따른 건강 상태를 분류해 복약관리, 건강습관 개선, 만성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취약계층 노인 388명(320가구)을 발굴, 보건소 방문간호사 방문을 통한 건강문제 전수조사와 함께 지속 관리가 필요한 노인 31가구는 방문건강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의 검진 협약을 체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221명의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했다.

유소견자는 2차 검사를 통해 만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등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에 기여했다. /나주=정충환기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텝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는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듈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러더 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이빙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패시스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롤 | 인체공학력 L 프레임 | 온열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기능